

〈누더기 얼굴〉 더듬기: 모습이라는 난제 (발췌)

윤지선은 사진가라기보다는 사진을 사용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사진은 바느질 행위를 통해 변질되고, 복잡해지고, 파괴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본적으로 윤지선의 작업은 그가 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사진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지선은 상이한 종류의 환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탐구하고, 사진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시하고 그것을 다른 물질과 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외형, 또는 모습이라는 난제를 풀어간다. 요컨대, 그의 작업은 사진적 진실이라는 고정된 환영을 해체하는 것이다.

윤지선은 순수한 것을 혼탁하게 만듦으로써 인습타파적 행위를 지속한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을 제공한다고 오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급 사진을 생산하기 위한 철저한 과정에 의존하는데, 윤지선은 오히려 사진을 꺾매고, 변질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다. 윤지선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사활동이었던 바느질을 이용해 어떤 형태를 찾아가는, 사진의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탐색을 취한다. 더 나아가 그의 작업은 두 극 사이를 오고 가는데, 그것은 겉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존재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 외형을 불안정하게 제시한다. 사진에 바느질하는 그의 초기작업은 초현실주의의 일상적 사물의 개입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작품들이 더욱 회화적으로 변하였고 그 자체의 생명력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사진적 얼굴과 꺾매진 얼굴, 그리고 앞면과 뒷면이 고스란히 매치되지 않는 이중의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다. 윤지선은 그의 사진을 파괴하는 창조적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드러내는 직감을 개발한다. 작가에게 사진은 허물이고, 바느질을 통해 모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윤지선이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역설적이다. 무엇보다도 사진의 객관성은 바느질 작업의 즉물성 아래 묻히게 된다. 그의 작업은 가시적 세계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사진 자체의 특성에 반하여 이루어진다. 포토그래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빛으로 된 드로잉”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 〈누더기 얼굴〉에서 그리기는 사진을 뒤덮는 색실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리기의 행위는 사진의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사진이란 인화지의 화학물질 속에 잠겨든 잠재의 이미지를 인화한 뒤 영구히 고정시킨다. 그에 반해, 윤지선은 이미 고정된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차후에 만들어낼 잠재된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문영민 (작가/비평)

본 글은 Yoon Ji Seon, “Locating Rag Face: The Enigma of Semblances” (Hatje Cantz, 2014)을 번역한 “〈누더기 얼굴〉 더듬기: 모습이라는 난제” 에서 발췌하였음.